

경전선 전철 나주 혁신도시 경유...광주 광역경제권 가시화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간 전철 노선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간 중간 경유지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역철도 형태의 경전선 구간에 대한 예산 부담 규모는 앞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 전철화사업’ 구간 경유지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포함됐다.

내년 착공, 2025년 완공

광주 송정역~나주 전철 연결

교통 인프라 개선 접근성 향상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인 광주송정-보성-순천 구간은 총연장 122.2km, 설계속도 시속 250km로 1조 770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전철화 사업이 완료되면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전철을 타고 광주송정역을 경유해 광주역까지 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 송정역에서 광주 도심을 경유하는 지하철 이용도 가능해짐에 따라 혁신도시와 광주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전

망이다. 기존에 2시간 16분이 소요됐던 ‘광주송정-순천’까지의 운행 시간이 43분대로 크게 단축됨에 따라 나주혁신도시에서 전남 동부권과 경남지역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전선 나주 경유는 KTX와 SRT가 경유하는 나주역 리모델링 증축과 맞물려 도시경쟁력을 크게 높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전선 전 구간 전철화 개통 시 목표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현재 6시간 33분에서 4시간 9분 단축된 2시간 24분, 광주에선 5시간 42분에서 3시간 6분 단축된 2시간 36분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설계시공 일괄 입찰과 패스트트랙 추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운임을 쓸 을 방침이다.

영·호남 차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경전선은 광주송정역에서 보성-순천-진주-마산을 거쳐 경남 밀양 삼랑진까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이다. 현재 삼랑진과 순천을 잇는 영남권역은 복선 전철화사업이 이미 완성됐거나 진행중이지만 호남권역인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이후 단 한번도 개량되지 않은 단선비전철 구간으로 남아 있다.

광주시에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를 열고 광주-혁신도시 간 경전선 연계 운행 추진,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등 연계협력 사업을 검토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인 지난 7월 24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 하이드리빙 경기장에서 한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

광주세계수영대회 10억9000만명 시청 179억 흑자 달성... ‘저비용 고효율’ 입증

FINA, 운영 결과 보고서

145개국 SNS 7억회 노출

올 여름 광주에서 개최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본 시청자가 145개국에서 10억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 수영대회 예산 잠정 정산 결과 179억원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사업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5%, 인천아시안게임의 11% 수준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주최측 설명대로 광주 수영대회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러진 셈이다.

2019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수영연맹(FINA) 측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주수영대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보내 왔다고 22일 밝혔다.

FIN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28일 개최된 수영대회는 145개 국가에서 211개 채널을 통해 방송됐고 담판이 나을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볼 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수영대회에는 191개국에서 7456명, 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8월5일~18일)에는 84개국에서 5365명이 참가하는 등 총 1만2821명이 참가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신기록 10개와 대회신기록 17개가 수립됐다.

무엇보다도 큰 성과는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국제스포츠대회 성공 모델을 보여줬고, 국제수영연맹과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라고 조직위는 자평했다. 광주수영대회는 총사업비가 평창동계올림픽(4조2853억원) 대비 5%, 인천아시안게임(2조376억원) 대비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하고 대회 물자와 물품은 빌려 사용했다. 그런데도 대회시설과 경기운영 분야에서 어느 대회보다도 훌륭하게 진행됐다고 국제수영연맹이 극찬했다는 것이다.

조직위가 대회 운영 사업비를 잠정 정산한 결과, 179억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보조금 825억원(국비 299억원, 시비 526억원), 기타 수입 619억원 등 총 1444억원으로 예산액 1342억원보다 102억원을 초과했으며, 지출은 1265억원으로 예산액 1342억원보다 77억원을 절감했다. 집행잔액 179억원은 2020년 조직위원회 청산 시까지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대회 레거시 사업으로 사용된다.

한편, 조직위는 내년 7월 법인 해산을 목표로 대회 시설 원상복구, 사업비 정산, 백서 발간, 대회 물자 처분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43명으로 운영 중인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2020년 1월 1일자로 12명의 최소 인력만 남아 사업비 최종 정산, 기록물 이관, 유공자 포상,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오는 2025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의 완공과 함께 광주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잇는 전철 노선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광주를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권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오늘 중국 방문...시진핑과 ‘비핵화’ 아베와 ‘수출규제’ 논의 정상회담

한반도 문제·한일관계 분수령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 중국 방문은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공식 일정 없이 한·중·일 외교 대화전을 대비한 막판 점검을 벌였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

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아베 총리와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공식 대좌다.

시 주석과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의 대면(對面) 수출규제 철폐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한다. 회

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연말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간 대결 기류를 대화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 여기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

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을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라고 볼 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 워크숍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기술이전교육(입교식)

기술이전교육(실습교육)

기술이전교육(이론교육)

창업컨설팅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워크숍